

# 해외 자본, 투자 넘어 직접 경영까지... 흔들리는 'K-게임'

카카오게임즈, H 라인야후 체제로 위메이드, M 알리바바 투자사 매각 개발력·IP 경쟁력 등 높은 평가에도 국내 게임사 기업가치 하락 영향 글로벌 수익성 중심 재편 우려

외국자본이 국내 게임업계의 경영권까지 확보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K게임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과거에는 전략적 투자나 재무적 투자에 머물렀던 해외 자본이 이제는 최대주주에 올라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사들의 기업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글로벌 자본이 한국 게임산업의 개발력과 지식재산권(IP)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주요 게임사를 둘러싼 대형 인수합병(M&A)의 주체는 대부분 해외 기업이나 해외 자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카카오게임즈다. 카카오는 게임사업 경쟁력 강화와 그룹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일본 라인야후에 카카오게임즈 경영권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국내



/AI가 만든 이미지

대표 게임사 가운데 하나였던 카카오게임즈가 사실상 일본 자본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위메이드 역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박관호 의장이 보유 지분을 중국 알리바바 계열 투자사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최대주주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게임을 함께 육성하는 위메이드의

사업 구조를 감안하면 단순한 지분 거래를 넘어 글로벌 사업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주목할 부분은 해외 자본의 성격이다. 과거에는 텐센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처럼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분을 투자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경영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 재무적 투자 성

격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거나 경영권 자체를 인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투자자가 아니라 경영 주체가 되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배경으로 국내 게임사의 기업가치 하락을 꼽는다. 신작 흥행 부진과 실적 둔화, 게임산업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주가는 수년 전과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반면 해외에서는 한국 게임사의 개발력과 글로벌 서비스 경험, 검증된 IP 경쟁력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자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게임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여기에 AI와 블록체인 등 신사업도 인수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게임 개발 역량뿐 아니라 생성형 AI 기술과 웹3 사업 경험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게임사는 단순 게임회사를 넘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게임 시장은 대형 퍼블리셔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다. 대규모 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력이 필요하고, 글로벌이

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이 독자적으로 경쟁하기보다 해외 자본과 손을 잡는 사례가 늘어나는 배경이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영권이 해외로 넘어가면 투자와 개발 방향이 국내 산업 생태계보다 글로벌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핵심 개발 조직 이전이나 인기 IP의 활용 전략이 해외 본사 중심으로 결정될 경우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한국 게임사의 개발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정작 기업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해외 자본의 인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글로벌 게임 시장에 대형 자본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의 기업가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해외 자본의 경영권 인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SKT, 내년까지 전국 'T 월드' 매장에 AI 도입

매장 별점 공개 시스템 도입 맞춤형 매장 검색 기능 구현 AI 상담 분석 단계적 확대

SK텔레콤이 2027년까지 오프라인 전 매장을 대상으로 AI 전환에 나선다. 고객은 전국 어디서나 균일한 서비스 품질을 경험하고 현장 직원들은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전국 T 월드 매장에 인공지능(AI)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9월부터 매장용 AI 에이전트 등을 도입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2027년까지 매장 탐색과 대면 상담 등 고객 경험을 AI 기술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먼저 고객이 쉽게 매장을 찾을 수 있도록



SK텔레콤이 2027년까지 오프라인 전 매장을 대상으로 AI 전환에 나선다.

록 매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T월드 홈페이지와 앱에 별점 공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음성인식(SIT) 기반의 AI 콜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의 만족도와 추

천도를 조사한 '고객 추천 지수'를 별점 형태로 알기 쉽게 나타냈다.

온라인 T월드에 맞춤형 매장 검색 기능도 구현한다. AI로 수집한 고객 경험 데이터와 매장 데이터를 결합·활용한다. 이

를 통해 고객은 단말기 제고와 혜택 정보, 매장 특성 등 원하는 조건의 매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대면 상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AI 상담 분석' 기능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상담 내용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하고 요약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전국 300여개 매장에서 안심 상담 녹음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온라인 상담 및 방문 예약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고객이 사전에 방문 목적을 예약하면 매장에서 필요한 안내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상담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점주 및 T크루 전용 AI 에이전트 활성화도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매장의 강·약점 진단, 매장 간

비교 분석, 효율적인 인력 운영 등 맞춤형 매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의사 결정을 도와 업무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또 매장 운영 효율을 높이고 고객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 공식 인증 매장에서 근무하는 T크루용 AI 에이전트는 고객 상담 중 필요한 업무 지식을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직원의 취약 상담 영역을 진단해 개선 방향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전반적인 상담 역량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숙지해야 할 지침도 AI 에이전트가 실시간 지원한다. 직원들의 학습 부담을 덜고 정확한 응대와 고객 관리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최종 목표는 서비스 품질의 상향 평준화다. 고객이 원하는 T월드 매장 정보를 신속하게 찾도록 돕고, 전국 어느 매장을 방문하더라도 균일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다.

/조민선 기자 msjo@

## 네이버, AI 서비스 전 과정 관리한다

AI 안전성 체계 'ASF 2.0' 공개

네이버가 이용자들의 안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경험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 AI 안전성 체계 'ASF 2.0'을 공개했다.

네이버는 8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인공지능안전 서울 포럼(SFASS)'에서 ASF 2.0의 방향성과 구성 요소, 강화된 분류·관리·실행 체계 및 향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ASF 2.0은 네이버가 지난해 AI 서울 서밋에서 공개한 ASF를 고도화한 AI 안전성 관리 체계다. 기존에는 AI 기술 모델의 성능과 위험 수준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관리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이용자가 경험하는 AI 서비스 전반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는 AI 서비스의 기획과 개발, 출

시, 운영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멀티모델 기반 서비스 환경을 반영했다. 기존 성능 중심 평가 체계도 맥락, 활용 사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를 위해 AI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AI 위험 분류 체계'와 서비스 활용 범위와 예상 영향을 평가하는 'AI 영향 평가 매트릭스'를 도입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안전성 평가와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서비스를 관리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ASF 2.0이 서비스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전사 실행 체계인 'CHEC 2.0'도 마련했다. 지난 6월 선보인 AI팀 역시 설계부터 출시까지 CHEC 2.0을 적용해 안전성을 점검했다.

/최빛나 기자

## LG U+, '휴대폰 안면인증제' 활성화

남대문점서 시연 진행 3초 만에 본인 인증 완료

LG유플러스가 '휴대폰 안면인증제' 활성화에 나섰다. 이날 LG유플러스 남대문점에서는 회사 측이 마련한 휴대폰 안면인증 시연이 진행됐다.

직원 안내에 따라 신분증 확인 후 고객 본인의 휴대폰으로 얼굴을 인식했다. 얼굴 위치를 맞춰 달라는 안내 문구에 따라 좌우로 인식하면 약 3초 만에 인증이 완료된다. 패스앱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은 '브라우저로 확인하기'를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날 시연을 진행한 LG유플러스의 오펜팅 컨슈머DX 담당은 "패스를 통한 가입과 브라우저를 통한 가입은 보안상 차이가 없다"며 "시스템은 이동 통신 3사가

모두 같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지난 6일부터 대면·비대면 채널에 안면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며 시스템 인식률과 현장 운영 절차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통3사 308개 대리점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정보보호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성 점검도 진행했다.

한편 본인 확인 절차는 앞으로도 계속 고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8월 중 대체수단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의 위변조 여부 확인을 본인 확인 절차와 자동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조민선 기자

## 삼성SDS 성과급 인사개편 무산 직원투표 과반 못미쳐

삼성SDS의 성과급 제도과 관련한 인사제도 개편이 무산됐다. 임직원 찬반 투표에서 과반 이상 동의에 미치지 못해서다. 이에 인사 제도는 현행 대로 운영한다.

8일 삼성SDS에 따르면 성과급 개편과 관련한 임직원 투표 결과, 전체 기준 최종 동의율은 40%에 그쳤다. 투표에 참여한 55.6% 중 동의율은 71.9%로 나타났다.

성과급 개편 내용은 연봉의 20%를 자사주로 지급하고, 기존의 현금 목표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것이다. 다만 일부 직원 사이에서 주가와 같은 시장 변수에 따른 보상 규모 변동과 퇴직금 산정 기준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인사제도 개편 무결로 인해 향후 보상과 관련한 논의는 노사 교섭 테이블로 옮겨갈 전망이다. /조민선 기자